

부여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을 통해 본 백제 官爵의 용례와 기능 - 기초적 검토

신광철*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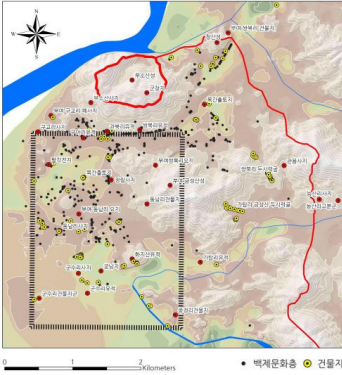
부여 관북리유적 16차 발굴에서는 국내 단일 유적 최대 규모인 329점의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백제 官爵이 확인되었다. 특히 小將軍·都督·道使·書人 등 그간 보기 드물었던 관직 및 施德·文督·武督·佐軍 등 주로 下品에 해당하는 관등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본고는 백제 관작 체계 전체를 확정적으로 복원하기보다, 이들 관작의 용례와 기능을 6세기 중반의 맥락에서 기초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은 사비기 백제의 인사 운영과 지방통치, 문서행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문헌 중심의 기존 이해를 보완하는 실증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백제 軍制 및 고대 軍事史 연구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주제어: 백제, 관북리유적, 목간, 軍制, 小將軍, 都督, 道使, 書人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군사고고학 전공)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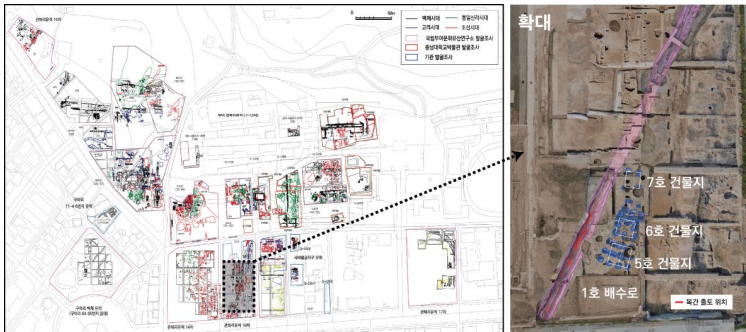


〈그림 1〉 사비도성 범위 추정도¹⁾

1980년대 이전부터 泗泚期 백제 왕궁터 후보지로 주목받았던 부여 관북리유적 조사가 최근 17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5일, 16차 발굴 성과에 대해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16차 구역은 14차 조사에서 확인된 대단위 성토 대지와 연결된다. 관북리유적은 이 성토 대지 조성 시점을 기준으로 발전했는데, 발전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2~4단계로 나뉜다.

14차 발굴에서 백제시대 구지표로 파악한 1층군은 16차 발굴 결과 청동기시대 추정 수전 및 저습지에 해당함이 밝혀졌는데, 이를 대지로 활용하기 위해 백제시대에 최대 150cm까지 성토하였다.³⁾



〈그림 2〉 목간 출토 지점(16차 구역 1호 배수로)²⁾

- 1) 강동석, 「사비도성의 경관 해석」,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8-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 38쪽.
- 2) 김지선, 「부여 관북리유적의 형성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2025-2, 한국고고학회, 2025, 452쪽 수정;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1,500여 년만의 귀환, 사비백제의 악기와 문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관북리 유적 조사 성과 기자간담회 설명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6, 22쪽 수정.
- 3) 김지선, 앞의 글, 2025, 453~454쪽.

16차 구역은 성토 대지를 기준으로 하부의 1단계, 상부의 2·3단계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1호 배수로는 성토 대지가 조성되기 이전인 1단계에 해당하며, 배수로 동편 굴립주 건물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328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削屑과 木屑도 출토된 것을 보면 상기 건물지는 목간을 제작·관리했던 행정 관청이었던 것 같다. 庚申年(540)·癸亥年(543)명 목간, 배수로 바닥에서 수습한 단년생 초본 식물의 탄소연대값(433~595년), 6세기 중엽의 삼족기 등을 통해 배수로는 사비 천도(538) 직후부터 6세기 중반 사이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⁴⁾

상기 조사에 대해 조사단이 강조한 점은 총 4가지이다. ①국내 最大 수량, ②사비기 最古 시기의 목간이 출토되어 ③사비 천도 후 백제 중흥을 위한 국가 문서행정을 알게 된 점, ④最初로 삼국시대 橫笛 실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소리를 복원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러하다.

목간이 단순한 標札이나 附標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의 실무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서群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 본고에서는 이 방대한 자료 중에서 여러 武官職 등 백제 官爵이 갖는 고대 군사사적 의미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자간담회 자료를 보면 ‘功四爲小將軍刀足二’가 적힌 31번 목간을 제시한 뒤 ‘공적이 4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라는 의미의 인사 관련 문서로 해석하였다. 이때 ‘小將軍’은 동아시아 軍制에서 상당히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都督’ 및 ‘旅武’는 처음 확인된 관작이며, ‘道使’는 『括地志』 기록을 근거로 城 단위 지방관에 국한하다가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관직이다.⁵⁾ 그 외 施德, 文督, 武督, 佐軍 등 下品의 관등이 주로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목간에서 확인된 관작 중 무관직 및 軍政 실무와 접점이 큰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문서행정 영역과의 연결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논의하겠다. 물론, 최근에 공개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예비적

4)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2026, 7~23쪽.

5) 송기섭,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본 百濟의 道使」, 『한국고대사연구』 119, 한국고대사학회, 2025.

검토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향후 보존처리, 정밀 판독, 정식 발굴 보고서 간행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백제 관작 체계 전체를 확정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목간에 나타난, 6세기 중반 官爵의 용례·기능·서식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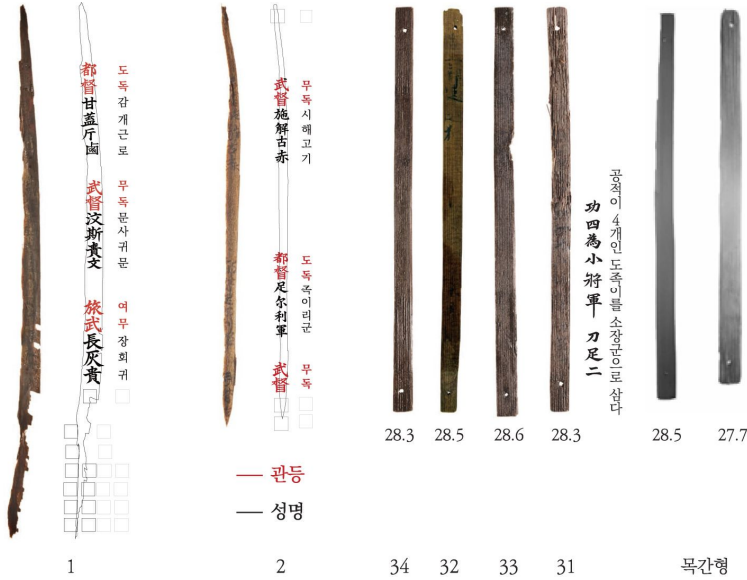
2. 목간에 수록된 문구 검토

1번 목간에는 ‘都督 甘蓋斤鹵’, ‘武督 汶斯貴文’, ‘旅武 長灰貴[]’, 2번 목간에는 ‘武督 施解古赤⁶⁾’, ‘都督 足爾利軍’과 ‘武督[]([])', 3번 목간에는 ‘施德’, 4번 목간에는 ‘書人’, 5번 목간에는 ‘佐軍’, 7번 목간에는 ‘文督’, ‘20번 목간에는 ‘道使’, 31번 목간에는 ‘… [][]功四爲小將軍刀足二’가 쓰여 있다. 대부분은 ‘관작+이름’만 쓰여 있지만, 31번 목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2.1. 31번 목간: ‘小將軍’과 ‘刀足二’

31~34번 목간을 보면 대체로 길이가 28cm 내외⁷⁾로 조사단은 발치림 끈으로 엮어 編綴한 형태의 문서 일부로 보았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목간이 총 6점 공개되었으며, 그중 2점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31번 목간에 ‘… [][]功四爲小將軍刀足二’라는 문구가

-
- 6)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2026, 25쪽. ‘적(赤)’으로 판독했지만, 독음은 ‘기’로 적고 있다. 『康熙字典』에는 ‘그 음이 칙(ch-)과 같다(絳昌石切, 音尺.)’라고 적고 있다. 발음 기호로는 ‘chi’나 ‘qi’로 쓸 수 있는 터라 양자는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 혹 ‘弃’와 같은, 형태가 비슷한 글자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7) 심상욱, 「부여 지역 백제 목간의 발굴 현황과 분포」, 『목간과 문자』 30, 한국목간학회, 2023, 55~56쪽. 그간 부여에서 수습된 166점의 목간 중 146점이 기다란 판자형이다. 그중 판자 양쪽에 홈을 판 것은 길이 15cm 이하의 것과 15~25cm 사이군만 확인되었으며, 판자 양쪽에 홈이 없거나 구멍이 뚫린 것은 다양한 규격이 확인되었다.
- 8)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앞의 글, 2026. 모든 그림은 상기 자료에서 발췌했다.



〈그림 3〉 백제 관작이 적힌 목간⁹⁾

쓰여 있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⁹⁾

관독이 불분명한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를 분절하면 ‘功四+爲+小將軍+刀足二’의 4음절로 나누는데 큰 이견은 없다. 이 중 ‘爲+小將軍’과 달리 앞의 ‘功四’와 뒤의 ‘刀足二’는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목간에 나오는 문구의 구조(관작+이름), 장군직 임명 또는 인사발령에 대한 목간이라는 추정 하에 앞뒤의 글자는 人名이나 功勳, 褒賞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총 3가지 정도의 해석(안)을 도출할 수 있을 듯싶다.¹⁰⁾

- 9) 전체 길이 및 다른 목간에 남아 있는 상단의 글자 수와 비교했을 때 功자 위로 9자 정도의 글자가 더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목간의 인명이 모두 4자[複姓]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하단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10) ‘刀足二’를 인명으로 보고 다음 목간으로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複姓의 인명을 굳이 ‘3+1’자 형태로 끊어서 새겼을 리는 없다고 본다. 설사 인명이 3자라 하더라도 ‘관등+이름’도 아니고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만 다른 목간에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별도의 관작이나 美稱일 가능성도 있으나 비교 사

- ① 공훈+(임명+관직)+인명: 인사발령 문서
해석: 공훈 4개 또는 4등급 공훈으로 도족이를 소장군에 임명한다.¹¹⁾
- ② 평정+(상태+관직)+인명+(식별번호?): 장부 정이용 문서(個條式)
해석: 공훈 4개 또는 4등급인 자, 소장군(직), 도족이 또는 도족, 2
- ③ 인명+(임명+관직)+포상: 인사발령+포상 문서
해석: 功四공사를 소장군으로 삼고, 칼 2자루 1쌍을 주었다.
... 칼 2자루를 충분히 더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상기 9자가 하나의 완전한 서술문인지, 장부 등에 정리한 축약문인지 여부인데, 우선은 장군직 敍任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앞뒤 내용을 포함해 하나의 서술문으로 인지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주어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說文解字』에는 爲의 형상을 원숭이와 새 발톱에 비유하면서 ‘~처럼/으로 삼다’ 또는 ‘~이 되다/만들다’의 용례로 삼았으며, 『康熙字典』에는 爲의 뜻과 용례를 두고 ‘짓거나 만들다’, ‘다스리다/치료하다’, ‘시킨다(하게 하다)’, ‘어조사’, ‘성씨’, ‘돕다’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¹²⁾ 그렇다고 했을 때 ‘爲小將軍’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소장군으로 삼는다’ 또는 ‘소장군에 임명되다’ 정도가 적절하며, 고문헌의 사례들을 참고할 때 앞에는 주어, 즉 임명 대상이 나오는 것이 적합하다.

‘功四’가 이름이 된다면, ‘刀足二’는 이름 대신 다른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足은 ‘발’이라는 뜻 외에도 ‘가득하다/충분하다’, ‘그치다(멈추다)’, ‘만족시키다/채워주다’, ‘성립시키다/완성하다’, ‘지나치다’, ‘덧붙이다/더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¹³⁾ 이를 보면, 칼 2자루 1쌍 또

레가 전무해 이는 제외하였다.

11) 조사단 측 해석(공적이 4개인 도족이를 소장군으로 삼다)은 ①안과 대체로 동일하다.

12) 『康熙字典』, “爲, … 『說文』爲母猴也. 其爲禽好爪. 爪, 母猴象也. 下腹爲母猴形. 王育曰: ‘爪, 象形也.’. 又 『爾雅·釋言』作造爲也. 『書·益稷』予欲宣力四方汝爲. 『洪範』有猷有爲有守. 又治也. … 又使也. … 又語詞. … 又姓. … 又 … 助也.”

13) 『康熙字典』, “足, … 『說文』人之足也. 在下, 從止口. 『註』徐鍇曰: 口象股脛之形. 『釋

는 충분한 수량이나 예외적인 상황¹⁴⁾임을 서술한 건 아닐까 싶다.

즉, 31번 목간은 匸匸공사라는 인물이 어떠한 공훈을 세워 소장군에 임명되고, 군령권을 상징하는 기물이자 포상으로 칼 2자루¹⁵⁾를 받았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포상 문서’로 추정하고자 한다.

2.2. 1번·20번 목간: ‘都督’과 ‘道使’, ‘旅武’

앞선 31번 목간과 달리 해당 목간은 30cm를 훌쩍 넘는 크기로 반듯한 목판형이 아니다. 이것이 편철된 冊의 위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편철의 방식 및 책의 형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일회용 또는 연습용, 최종 보고용 등 목간의 기능에 따른 형태 차이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⁶⁾

1번 목간에는 총 3개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위에서부터 ‘都督 甘蓋斤鹵’, ‘武督 汶斯貴文’, ‘旅武 長灰貴匸’이 적혀 있는데, 모두 관작+이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름은 모두 複姓이다. ‘도독’의 경우, 금석문과 문헌을 통해 고구려,¹⁷⁾ 신라¹⁸⁾에서는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으나 백제에서

名』足, 續也. 言續脛也. … 又『廣韻』滿也, 止也. … 又不可曰不我足. … 又草名. … 又姓. … 又. … 足, 成也. … 又. … 足, 猶擁也. 又. … 益也. …”

14) 신광철, 「고구려 軍事儀禮 연구를 위한 提言」, 『新羅史學報』 62, 新羅史學會, 2024, 181~182쪽. 645년 백암성주 손대음은 ‘칼과 도끼를 던져 (항복의) 신호로 삼겠다’라며 당 태종에게 항복한다. 칼과 도끼는 軍令勸의 상징물로서 戰時라면 출정 의식을 통해 수여되었겠지만, 平時에는 특정 관직의 임명 및 발령에 수반되는 기물이었을 것이다. 즉, 이례적으로 2자루를 준 것에 대해 足이라는 표현을 썼거나, 2자루가 1쌍일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고대 문헌에서는 보통 ‘숫자+기물’의 형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刀+足+二’가 이두식 표현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16) 이상일, 「부여 관북리 유적 연못 출토 목간과 목제품의 폐기양상」, 『동서인문』 19,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22, 170~174쪽. 목간은 오용의 염려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취급하는 목간이 같은 곳에 일괄적으로 폐기된 점을 보면, 공반 출토된 목간群의 성격이나 기능 역시 유사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7) 이규호, 「4-5세기 고구려 中裏都督府의 성립과 기능」, 『高句麗渤海學研究』 53, 高句麗渤海學會, 2015. 고구려와 중국의 도독 개념이 달랐다는 점을 통해 삼국이 중원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變容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8) 『三國史記』 卷40, 職官志, 外官條, “智證王六年(505),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 文武

는 처음으로 확인된 관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번 목간에 적힌 ‘道使’는 기존에 『翰苑』에 인용된 『括地志』의 기록만 알려져 왔다. 이후 발굴에서 수습한 백제 목간 및 기와에서 조금씩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관련 자료가 워낙 영성하다 보니 고구려·신라와 달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구려·신라 연구 시 부차적으로 언급되거나,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되곤 했다.



〈그림 4〉 1번 목간
‘旅武’ 확대 사진

한편, 1번 목간의 마지막 문구를 현재 조사단은 ‘旅武 長灰貴[]’로 판독하였다. 해당 관등이 백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문헌 사료와의 정합성 그리고 목간 내 문구가 앞선 ‘武督(13품)’을 기준으로 한 품계 질서를 반영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 상황에서 ‘여무’를 곧바로 새로운 관등명으로 확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대 중국에서 ‘旅’가 500명 규모의 군 편제 단위로 사용¹⁹⁾된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北史』 등에는 사비기 도성이 5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에서 5백 명을 통솔했다고 하는데,²⁰⁾ 13품 또는 그 이하의 무관이 그 정도의 병력을 통솔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 목간이 사비 천도 직후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본다면, 후대에 정비된 군사 편제의 규모를 그대로 소급 적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사단의 ‘旅武’ 판독을 우선 존중하되,²²⁾ 관등의 배열과 문헌 사료와의 정합성, 문맥상 ‘振武’²³⁾로 읽힐 가능성 또한 열어

王元年(661), 改爲摠管. 元聖王元年(785), 稱都督, 位自級滄至伊滄爲之.” 신라의 경우, 군주→총관→도독 순으로 개칭됐다고 하지만, 『新羅本紀』 및 『列傳』을 보면 도독이 이미 진평왕 대부터 등장해 총관보다 선행함을 알 수 있다.

19) 『周禮』卷3 地官司徒2,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軍, 以起軍旅.” 그 외 『說文解字』에도 “軍之五百人爲旅.”라고 명시하고 있다.

20) 『北史』卷94, 列傳82, 百濟, “都下有萬家分爲五部, … 部統兵五百人.”

21) 小學堂 字形演變資料庫(<https://xiaoxue.iis.sinica.edu.tw/>) 검색 결과(‘26.3.15.)

22) <그림 5>와 같이 楷書가 아닌 異體字일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楷書	金文	簡帛	說文	隸書	異體字	
旅						
	甫人父匜 西周晚期	包2.116 戰國(楚)	說文: 扌部	睡虎地簡25.41 秦	楊叔恭殘碑 東漢	部件: 礻 部件: 扌
振		...				
	禽簋 西周早期	...	說文: 手部	熹詩校記 西漢	晉時雍碑陰 東漢	部件: 广 部件: 扌

(그림 5) '旅'와 '振'의 서체 비교²¹⁾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향후 정식 발굴보고서의 간행을 통해 정확한 판독을 기대하는 바이다.

2.3. 2번 목간: 官爵의 순서

2번 목간의 경우, 1번 목간과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이라면 맨 위에서부터 '무독→도독→무독' 순으로 관작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 관작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上位부터 서술하는 게 상례이다. 목간의 성격이 일회용 또는 연습용이든, 보고용이든 의도적으로 관작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목간에 표기된 순서 그대로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주목되는 것은 '무독 시해고기'와 '도독 족이리군' 사이에 일정 범위의 공간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위와 아래가 別件에

21) 『尙書』虞書 大禹謨, “禹拜, 昌言曰: 「兪, 班師振旅, 帝乃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 有苗格.” 『상서』에서 유래한 ‘班師振旅’는 ‘군대[師]를 철수해[班] 무리[旅]를 정비하다[振]’라는 뜻이다. 해당 문구가 이후 관용어구처럼 쓰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여무’로 판독이 확정된다 해도 그 의미가 ‘진무’와 상통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다만, 해당 관등을 ‘振武(15품)’로 봤을 때 관등 순서상 보다 합리적인 문구가 완성될 뻔했어, 기존 문헌 사료와도 합치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속하는 사안임을 표시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품 관등인 ‘무독 시해고기’(13품) 인물 1명에 대한 발령 또는 포상 조치를 작성하기보다는 앞에 연결된 목간의 내용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해당 목간이 단일한 기능을 했다가보다는 다른 목간과 함께 묶여서 하나의 공문서로 기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2.4. 4번 목간: ‘書人’의 성격

‘書人’은 보통 ‘글을 작성하는 사람’, ‘글을 읽고 쓰는 계층’ 등으로 해석된다. 국내 사료에서는 전혀 존재를 파악할 수 없고,²⁴⁾ 신라 금석문에서 다수가 확인되어 그 전말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와 <단양 신라 적성비>(6세기 중반),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561년)를 보면 당시 신라의 공공문서는 ‘서인’이라 불리는 職群에서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유사 명칭으로 ‘作書人’(울주 천전리 각석/525년), ‘書寫人’(경주 명활성비/551년), ‘文作人’(대구 무술명 오작비/578년), ‘書尺’(경주 남산신성비 제4비/591년), ‘文尺’(경주 남산신성비 제1비·2비·3비·9비/591년) 및 ‘作上人’(경주 남산신성비 제2비·3비·5비/591년) 등이 있는데, 이는 해당 계층의 성격 또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²⁵⁾

국가 통치에 있어 행정관료는 필수 존재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 백제 목간에서 처음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24) 고려시대 사료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사료인 『承政院日記』에서 ‘作書人’이 단 1건만 확인되며, 『朝鮮王朝實錄』에는 ‘讀書人’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나올 뿐이다.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줄 아는 계층이 관료로서 갖는 지위가 고대와 많이 달라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5)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비편에는 ‘作人’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는 기존의 신라 금석문에서 보이지 않던 표현인데, 현재 비편의 제작 시점(6세기 중엽 이후/7세기 중후엽 이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다른 신라 금석문을 고려했을 때, ‘書人(글을 쓰는 사람)’과 ‘作人(글을 새기는 사람)’이 분화된 현상을 반영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양상은 동시기 중원 왕조에서도 간취되는 부분으로, 시기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해당 계층이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추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3. 목간에 표기된 백제 官爵의 의의

3.1. 백제 무관 체계 속의 ‘소장군’

3.1.1. 동아시아 군제에서 ‘소장군’의 위상과 성격

31번 목간에 적힌 ‘小將軍’을 단순히 ‘大將軍’과 대비되는 下位의 장군 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 동아시아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장군호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秦·晉으로부터 비롯된 장군직은 漢代까지만 해도 常時職이 아니어서 전쟁 시에만 설치되었다.²⁶⁾ 하지만 전한대에 이미 장군직이 常置된 것을 보면,²⁷⁾ 처음부터 장군은 단순히 지위와 명예를 표시하기 위한 칭호가 아닌, 물리적 實力을 행사할 수 있던 관직이라고 봐야 한다.

후한 초에는 戰亂이 발생하면 관할 구역의 태수, 중랑장, 교위 등이 應戰하거나 州·郡兵이 동원되었다. 이때 州刺史가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지만,²⁸⁾ 대부분은 조정에서 파견한 인사가 지휘권을 지녔다.²⁹⁾ 후한 말기가 되면 지방 장관 및 호족들이 특정 관직을 자칭하거나 장군을 겸하기 시작한다. 자연스레 지방 장관[牧守]보다 장군이 軍閥로서 성장하기에 유리한 신분으로 인식되었고,³⁰⁾ ‘조조’처럼 ‘군사력을 겸비한 공[加兵公]’을 중심으로 公府의 幕府化, 즉 軍府化가 공문화되었다.³¹⁾

동오 정벌 직전(279), 西晉에는 17명의 자사 및 다수의 태수가 장군을

26) 『後漢書』 志24, 百官1, “將軍, 不常置. 本注曰: 「掌征伐背叛. 比公者四: 第一大將軍, 次驃騎將軍, 次車騎將軍, 次衛將軍. 又有前·後·左·右將軍. … 以古尊官唯有三公, 皆將軍始自秦·晉, 以爲卿號, 故置大司馬官號以冠之.”

27) 金翰奎,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體制」, 『東洋史學研究』 44. 東洋史學會, 1993, 85-86쪽.

28)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61, 288-289쪽.

29) 崔珍烈, 「後漢 光武帝의 官制·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22.

30) 『三國志』 卷16, 吳書1, 孫策, “江表傳曰: 建安二年夏 … 策自以統領兵馬, 但以騎都尉領郡爲輕, 欲得將軍號, 乃使人諷誦, 誦便承制假策明漢將軍.”

31) 『晉書』 卷24, 志14, 職官, “諸公及開府位從公爲持節都督, 增參軍爲六人, 長史·司馬·從事中郎·主簿·記室督·祭酒·掾屬·舍人如常加兵公制.”

검하면서 군부의 숫자는 백수십 개에 달했다.³²⁾ 통일 후 서진 대에서 牧守들이 장군직을 겸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했다는 일화³³⁾를 통해 장군호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진의 宗親들이 거느린 수만의 병력은 ‘8왕의 난’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

즉, 해당 시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군호를 두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軍功에 대한 포상의 수단으로 보거나³⁴⁾ 한대에는 實職이었다가 唐代에 散官化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³⁵⁾은 무리가 있다. 魏晉 이후부터는 軍事뿐만 아니라 幕府 개설을 통해 內朝, 즉 정치·행정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軍府體制³⁶⁾는 隋 등장 이전까지 존속했으며, 특히 남조 諸 왕조의 잦은 교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東晉 대에는 중앙군의 피폐와 장군호의 확산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다. 품계에 따라 정연하게 자리잡은 장군호는 『宋書』에서 처음 보이는데, 대장군을 비롯한 93개의 장군호가 1~8품에 걸쳐 편성되어 있다. 梁代에는 수차례 관제를 개혁하면서 장군호를 전통적인 관료 조직과 분리하고 수백 개를 新設하였다. 최상위의 극소수 장군직을 제외하면 정원이 없었기에 수많은 장군직이 병존하였고, 관제에 없는 별도 장군호도 수시로 特設되었다. 이는 남조 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사적 무장집단 [部曲]을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그 결과, 수백 개의 장군직을 차등적으로 재배치한 섬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³⁷⁾

백제의 경우, 3세기 초반에 左將이라는 장군직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32) 『晉書』卷47, 列傳17, 子咸, “然秦始開元以暨于今, 十有五年矣. … 舊都督有四, 今并監軍, 乃盈於十. 夏禹敷土, 分爲九州, 今之刺史, 幾向一倍. 戶口比漢十分之一, 而置郡縣更多. 空校牙門, 無益宿衛, 而虛立軍府, 動有百數.”

33) 『通典』卷33, 職官15, 州郡下, “郡太守 … 晉郡守皆加將軍, 無者爲恥.”

34)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同朋舍, 1956, 308쪽.

35) 高橋徹, 『南北朝の將軍號と唐代武散官』, 『山形大學史學論集』15, 山形大學人文學部教養部歷史學研究室, 1995; 閻步克, 『品位與職位』, 中華書局, 2002.

36) 李周鉉, 『軍府體制로 본 魏晉南北朝史』, 『中國學報』38, 韓國中國學會, 1998. ‘幕府’라는 용어가 아주 드물게 남조 말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국~서진 초 이래로 ‘軍府’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37) 李周鉉, 『魏晉南朝의 將軍制와 ‘寧東大將軍’』, 『百濟文化』46,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12, 191~193쪽.

좌·우보제가 좌평·좌장으로 개편되었으며, 좌장은 평상시 국가 전체의 軍政을 담당하다가, 유사시 부병 연합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총사령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한다.³⁸⁾ 그리고 근초고왕-근구수왕대(4세기) 장군 莫古解의 존재를 보면 좌장 휘하에 각 체대별로 軍務를 담당할 무관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세기 동아시아에서 장군호를 포함한 책봉호가 광범위하게 유통된 점³⁹⁾을 고려하면, 수백 년간 독자적인 군사문화를 구축해 온 백제가 중원 왕조의 장군제 변화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26사 기준으로 大將軍의 존재는 쑤중국사에서 확인되지만, 中將軍과 小將軍은 특정 시기에만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해당 장군호의 사용 시점과 성격을 파악하면, 6세기 중엽 백제에서 소장군이 갖는 위상 또는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가장 먼저 등장한 소장군은 『史記』·『漢書』의 사례이다. 酈商이 세운 전공을 언급할 때 小將이 등장하는데, 정식 장군호인지, 단순히 적장의 위계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장군호로서는 西燕의 마지막 황제 ‘慕容永’이 처음 출사했을 때(384) 받은 무관직이 최초 사례이다. 정확한 품계나 성격은 알 수 없지만, 5호16국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장군직과는 다르며, 임시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후 수나라 大業 11년(615), 반란 세력 중 하나인 杜伏威에게 關陵과 王雄誕, 2명의 양자가 있었는데 軍中에서는 형인 감릉을 대장군, 동생인 왕웅탄을 소장군으로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식 관직명이 아니므로 여전히 상시 무관직으로서의 소장군은 보이지 않는다.

38) 정동준, 「백제 초기 관제(官制)의 성립과정-좌(左)·우보(右輔)와 좌장(左將)·좌평제(佐平制)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123~130쪽.

39) 정동준, 「5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백제 및 남조 주변제국에 수여된 장군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2, 효원사학회, 2017; 「5호16국의 고구려 책봉과 그 의미」, 『韓國史研究』 207, 韓國史研究會, 2024.

40) 소장군은 漢代에 잠깐 등장했다가, 남북조 시기를 거쳐 수대까지 등장한다. 단, 職官條에만 등장하고, 실제 이를 역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虛銜이었을

〈표 1〉 중국26사에 수록된 대·중·소장군 사례 검토

연번	중국 26사	장군호별 검색 수량			비고
		대장군	중장군 ⁴⁰⁾	소장군	
1	史記	167	3	1(?)	小將 등장(의미 모호) ⁴¹⁾
2	三國志	326			
3	漢書	345	3	1(?)	『史記』와 동일 사례 ⁴²⁾
4	後漢書	620			
5	晉書	631			
6	宋書	301			
7	南齊書	79			
8	北齊書	184	(1) ⁴³⁾		
9	梁書	94	(1) ⁴⁴⁾		
10	陳書	135			
11	魏書	1,124	2 ⁴⁵⁾		최초로 上中下 장군제가 체계화
12	周書	799			
13	南史	254			
14	北史	1,343		1	西燕慕容永 출사 시 무관직(384) ⁴⁶⁾
15	隋書	426	2 ⁴⁷⁾		선미계 군사 전통의 가능성
16	舊唐書	795		1	隋: 王雄誕의 별칭(615) ⁴⁸⁾
17	新唐書	738		1	唐代 무관직 등장(26사 이외 사료)
18	舊五代史	214		2	同光 2·3년 조경 문서(924·925) ⁴⁹⁾
19	新五代史	63			
20	宋史	464			소장군 다수 확인(26사 이외 사료)
21	遼史	46		20	제도화된 상시 무관직(10-11세기) ⁵⁰⁾
22	金史	54			
23	元史	208			
24	新元史	238			
25	明史	202		4	四夷舞曲(음악) 중 하나 ⁵¹⁾
26	清史稿	534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때의 ‘中’은 크기를 뜻한 ‘대중소’의 하나가 아니라 위계를 뜻하는 ‘상중하’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 ‘대·소장군’ 또는 ‘상·하장군’처럼 상반된 개념을 이용한 장군호가 통상적으로 쓰였으며, ‘중간직’ 의미를 지닌 용어는 잘 쓰이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1) 『史記』卷95, 樊鄴滕灌列傳, 鄴商條, “... 凡別破軍三, 降定郡六, 縣七十三, 得丞相守相·大將各一人, 小將二人, 二千石已下至六百石十九人.” 『漢書』鄴商傳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2) Yantao Kuang, “Speculation on the Scribal Nature of the Shiji Based on Two Cases of Misordered Slips in the Memoirs Section”, *Journal of Singoraphic Philologies and*

정식 직제로서의 소장군은 540여 년이 지난 同光 2년(924)과 3년(925)에 등장한다. 後唐의 莊宗이 前蜀을 합병한 뒤, 그 나라의 관료를 흡수·재편하면서 출신에 따라 諸衛小將軍, 府率, 中郎將 등에 임명하라는 조서가 내려진다. 소장군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0세기 초반에는 소장군이 무관직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장군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시점은 遼代이다. 遼는 ‘北

Legacies 1-2,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2025. 해당 열전을 통해 『史記』 편찬 시 이미 원사료가 왜곡되었으며, 이를 『漢書』가 답습했음을 논증한 연구가 있다. 더불어 당시 좌·우승상이 단순히 황제의 좌우 보좌관이라는 정태적 직함이 아니라, 전선별 지휘를 분담하는 실전용 고위 지휘관이었다고 보았는데, 전한 초기 관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하게 하는 시각이다.

- 43) 『北齊書』 崔仲文傳을 보면 사료에 따라 中將軍과 中軍將軍이 혼용되는데, 당시 군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44) 『冊府元龜』에 따르면 양나라의 종실이었던 西昌侯 漢가 大通 3년(529)에 중장군에 제수된다. 남북조 시기의 혼란스러웠던 장군제 변화상을 고려했을 때, 당시 중장군이 라는 장군호가 실제 사용되기는 했던 모양이다.
- 45) 『魏書』 卷113, 志19, 官氏志, “右第九品: 偏將軍, 裨將軍, 太子廐長, 監淮海津都尉諸局都尉, 皇字典祠令, 皇子學官令, 皇字典衛令, 王公國上中下將軍, 王公國中大夫, 諸署令不滿六百石者.”
- 46) 『北史』 卷93, 列傳81, “庾弟運. 運孫永, 字叔明. … 及暉爲堅所殺, 沖乃自稱尊號, 以永爲小將軍.”
- 47) 『隋書』 卷27, 志22, 百官中, “皇子王國, 置郎中令·大農·中尉·常侍, 各一人. … 上·中·下三將軍, 各一人. … 諸王國, 則加有陵·廟長·常侍各一人, 而無中將軍員.”
- 48) 『舊唐書』 卷56, 列傳6, “王雄誕者, 曹州濟陰人. … 時闕棧年長於雄誕, 故軍中號棧爲大將軍, 雄誕爲小將軍.”; 『新唐書』 卷105, 列傳17, 杜闕王李苑羅王傳, “闕棧年長於雄誕, 故軍中號棧大將軍, 雄誕小將軍.”
- 49) 『五代會要』 卷14, 司封, “一, 准舊例, 應諸衛小將軍, 上中下等州刺史, 都督使額母妻封至郡君, 並止.” 『舊五代史』 卷33, 唐書, 莊宗7, “『五代會要』云: 如是西班有稱統軍上將軍者, 若是本朝功臣子孫及將相之嗣, 並據人材高下, 與諸衛小將軍·府率·中郎將, 次第授任. 如是小將軍已下, 據人材堪任使者, 宜委四川節度使衙前補押衙; 不堪任使者, 亦宜放歸田裏.” 동일한 내용이 『十國春秋』에서도 보인다.
- 50) 『遼史』 卷19, 本紀19, 興宗2, “(重熙) 10年(1041), … 秋七月壬戌 … 諸帳郎君等於禁地射鹿, 決三百, 不征償小將軍決二百以下, 及百姓犯者, 罪同郎君論.”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같은 책 刑法志 下에도 실려 있다.
- 51) 『明史』 卷63, 志39, 樂3, “四夷舞曲, 其一, 小將軍: 大明君, 定宇寔, 聖恩寬, 掌江山, 東虜西戎, 北狄南蠻, 手高擎, 寶貝盤. … 奏『撫安四夷之舞』, 曲名小將軍. 殿前歡·慶新年·過門子. … 四夷舞曲, 其一, 小將軍: 順天心, 聖德誠, 化番邦, 盡朝京. 四夷歸伏, 舞於龍廷. 貢皇明, 寶貝擊.” 그 외 兵志에 ‘大·小將軍統’의 사례가 1건 보이지만, 소장군과는 다른 개념이라 제외해도 무방하다.

面官은 궁장, 부족, 속국의 정치를 관장하고, 南面官은 漢人 주현의 조부, 군마를 관장한다.⁵²⁾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북면관에서만 다수의 ‘-소장군’직이 확인된다.⁵³⁾ 또한, 5호16국 시기와 달리 요대에는 소장군을 역임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확인되어 이것이 實職임을 알 수 있다.

保寧(969~979)·乾亨(979~983)·統和(983~1012) 연간에 활약했던 耶律斜軫의 庶子 ‘耶律狗兒’,⁵⁴⁾ 統和 24년(1006) 於越屋質의 서자 ‘耶律唐古’,⁵⁵⁾ 開泰 초(1012~) ‘蕭孝友’,⁵⁶⁾ 重熙 초(1032~) ‘滌魯’,⁵⁷⁾ 등이 모두 소장군을 歷任한 인물들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10세기 후반~11세기 초에 요에는 소장군이 상시 무관직으로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⁸⁾

한편, 앞서 공식적인 무관 체계상 북면관에만 소장군이 존재했고, 남면관[唐制]에는 대장군과 상장군, 장군 이하 諸衛, 諸軍 등이 있었음⁵⁹⁾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統和 4년(986), ‘耶律奴瓜’가 黃皮室糾都監에 더해 제위소장군을 제수받고,⁶⁰⁾ 鹹雍 4년(1068)과

52) 『遼史』卷45, 志15, 百官志1, “遼官制分北南院. 北面治宮帳·部族·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租賦·軍馬之事, 因俗而治得其宜矣.”

53) 전병우,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軍史』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遼史』百官志 北面朝官조를 보면 北院小將軍, 南院小將軍, 近侍小將軍, 宿直小將軍, 帳都詳穩司의 小將軍, 捨利小將軍, 遙輦糾小將軍, 國舅本族小將軍이 확인된다. 또한, 北面部族官조를 보면 각 部族에 속한 某部族小將軍, 軍府 내 大詳穩司에 속한 小將軍, 大將軍府에 속한 小將軍, 각 屬國에 속한 某國小將軍이 확인된다.

54) 『遼史』卷83, 列傳13, “耶律斜軫, 字韓隱. … 庶子狗兒, 官至小將軍.”

55) 『遼史』卷91, 列傳21, “耶律唐古, 字敵隱, 於越屋質之庶子. … 統和24年, 述屋質安民治盜之法以進, 補小將軍.”

56) 『遼史』卷87, 列傳17, “孝友, 字撻不衍, 小字陳留. 開泰初, 以戚屬爲小將軍.”

57) 『遼史』卷82, 列傳12, “滌魯, 字遵寧. 幼養宮中, 授小將軍. 重熙初, 歷北院宣徽使·右林牙·副點檢, 拜揚隱. 改西北路招討使, 封漆水郡王.”

58) 景祐 연간(1034~1038), 북송에서 宗親에게 황제의 근시직인 南班官을 제수하는 일과 관련한 일화가 『夢溪筆談』에 전한다. 종친에게 처음에는 ‘소장군’을 제수했다가 7번 승진하면 ‘절도사로 임명시키는 것이 정식 직제[定制]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당 또는 5대10국 시기의 소장군 성격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북)송과 요가 공존한 시기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무관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9) 『遼史』卷47, 志17上, 百官志2, 南面朝官, “旣得燕·代十有六州, 乃用唐制, 復設南面三省·六部·台·院·寺·監·諸衛·東宮之官. … 大將軍. … 上將軍. … 將軍. … 折冲都尉. 果毅都尉. 親衛. 勳衛. 翊衛. 左右衛. 左右驍衛. 左右武衛左右威衛. 左右領軍衛. 左右金吾衛. 左右監門衛. 左右千牛衛. 左右羽林軍. 左右龍虎軍. 左右神武軍. 左右神策軍. 左右神威軍. 已上武官.”

大康 3년(1077) 사이 ‘耶律那也’가 아버지의 蔭德으로 9세때 제위소장군을 제수받은 기록⁶¹⁾을 보면 남면관에 속하는 ‘제위’와 북면관 계열의 ‘소장군’이 결합하여 포상적 관작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소장군은 북면관에서는 ‘행정(詳穩→都監→장군→소장군)’ 또는 ‘군무(대장군→상장군→장군→소장군)’를 담당하던 직책⁶²⁾으로, 남면관의 무관 체계에 없는 ‘제위소장군’은 포상용 武職虛銜⁶³⁾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26사 이외의 사료를 보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난다.⁶⁴⁾

唐代 문헌인 『酉陽雜俎』에는 ‘劉沔’(780~845)가 淮西에서 활동할 당시의 직함을 小將軍頭로 적고 있으며,⁶⁵⁾ 會昌 연간(841~847)에 ‘李德裕’가 올린 상소에는 金吾小將軍이 등장하고,⁶⁶⁾ 5대10국 문헌인 『北夢瑣言』에는

-
- 60) 『遼史』 卷85, 列傳15, “耶律奴瓜, 字延寧, … 統和4年, 宋楊繼業來侵, 奴瓜爲黃皮室糾都監, 擊敗之, 盡復所陷城邑. 軍還, 加諸衛小將軍.”
 - 61) 『遼史』 卷94, 列傳24, “耶律那也, 字移斯輩, … 上以其父斡死王事, 九歲加諸衛小將軍, 爲題裡司從, 尋召爲宿直官.”
 - 62) 『遼史』 卷62, 志31, 刑法下, “諸帳郎君等於禁地射鹿, 決杖三百, 不征償, 小將軍決二百已下; 至百姓犯者決三百.” 李玉君·趙永春(김태순 譯), 「金代 ‘郎君’ 관련 문제 고증」, 『奎章閣』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요대 형법에 따르면, 금지된 구역에서 사슴 사냥을 했을 때 帳郎君 등과 백성은 장 300대, 소장군은 장 200대 이하를 치게 했다. (著)帳郎君은 요~금대 종실 또는 귀족, 호위·案牘 稽查 紙筆 등에 종사하던 관리 등을 일컫는데, 처벌 수위를 고려했을 때 비록 소장군이 무관직 중에서는 말단이지만, 百官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63) 曾震宇, 「遼朝檢校銜探析—兼談武散官的使用問題」, 『漢學研究』 38-3, 漢學研究中心, 2020. 논자는 실직과 별개로 위상·서열을 ‘추가’로 의미하는 散官과 특경 집단의 신분·등급 표시용 武職虛銜이 혼용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북·남면 모두에서 보이는 文散官과 달리 武散官은 북면관에만 편중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봤을 때 無品の ‘제위소장군’은 무산관보다 무직허품으로 분류해야 옳을 것이다.
 - 64) 대·소장군은 공식 職銜 이외에 수대 闕棧의 사례처럼 사람의 별칭으로도 쓰였지만(『野人閑話』), 말과 같은 동물(『程史』)이나 소나무·柏나무 등의 식물(『陶朱新錄』, 『五色線』), 별자리(『曆學會通』)의 별칭으로도 쓰였다.
 - 65) 『酉陽雜俎』 前集 卷4, 禍兆, “成式見大理丞鄭復說:‘淮西用兵時, 劉沔爲小將軍頭, 頗易之.’” 『新唐書』 유면열전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없지만, 太和 연간(827~835)에 여러 차례 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었다고 하니 만약 이 같은 직책을 맡았다면, 827년 이전의 일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소장군과 별도의 직함일 가능성도 있다.
 - 66) 『全唐文』 卷701, 殄滅回鶻事宜狀, “… 如兵馬使已下大將取得可汗, 便授金吾小將軍及大郡刺史, 賞錢一萬貫. …” 天子 車駕의 前驅·後衛를 담당했던 金吾衛에는 본래 大將軍(정3품) 1명과 將軍(중3품) 2명이 배속되었는데, 별도로 소장군이 등장한다. 정식 직제인지 포상적 성격의 임시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9세기 후반, 西班牙小將軍이 되었다는 ‘僧鸞’의 일화가 있다.⁶⁷⁾ 북송대 도교류 서적인 『雲笈七籤』에는 咸通 12년(871) 제위소장군에 임명된 ‘李約’이 등장하고,⁶⁸⁾ 『冊府元龜』를 보면 長興 2년(931), 東丹王 ‘突欲’과 함께 귀부한 실력자들에게 歸化·歸德小將軍을 제수했다고 한다.⁶⁹⁾ 그 외 송대 制書를 모은 『宋大詔令集』 등에도 소장군이 왕왕 등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를 보면 소장군은 【서연(모용선비)→당(선비계 호한훈혈)→후당(사타돌궐)→요(거란·북송70)/남송(한)71】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무관직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보이거나 당대부터 무관직으로 자리 잡아 요대에 비로소 정식 직제가 되었다. 그리고 군왕의 近侍職에서 종실과 귀족으로 이루어진 친위조직, 왕명 출납 및 검사, 호위 및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층 등으로 그 성격도 점차 변화되었다.⁷²⁾

특히, 송대 이전까지는 중원보다는 북방계 군사문화의 흔적이 더 많이 확인된 무관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체 빈도수를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흔치 않은 무관직이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
- 67) 『北夢瑣言』 卷10, 狄右丞鄙著紫僧(僧鸞附), “僧鸞有逸才, 而不拘檢, 早歲稱卿御. … 後爲西班牙小將軍, 竟於黃州遇害.”
- 68) 『雲笈七籤』 卷121, 道教靈驗記, “李約者, 咸通十二年, 爲諸衛小將軍.”
- 69) 『冊府元龜』 卷170, 帝王部, 來遠, “三月辛酉, … 幸臣按:「四夷入朝蕃官, 例有懷德·懷化·歸德·歸化等將軍·中郎將名號, … 勅旨: 突欲宜賜姓東丹, 名慕華, … 仍授罕只等五人歸化·歸德小將軍·中郎將.” 관련 기사가 『舊五代史』, 『契丹國志』에도 실려 있다. 후당 내부적으로 소장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 거란 측 귀부집단을 위해 소장군을 채택했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 70) 『續資治通鑑長編』 卷184, 仁宗, 嘉祐元年(1056), “丙申, 詔技術官合奏蔭者, 止授以伎術官, 仍一次而止. 其封贈, 初以副率, 次正率, 次小將軍, 毋得隔資而授.” 『續資治通鑑長編』 卷213, 神宗, 熙寧 3年(1070), “甲午, 樞密院言:「嘉祐二年詔: 諸司使攝大將軍, 副使·承制·崇班攝小將軍, 共不過二十人.” 嘉祐 원년(1056)과 嘉祐 2년(1057) 조칙을 보면, 북송대에 소장군이 산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대·소장군이 상호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세기 초, 북송에서는 이와 다른 개념으로 소장군이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1) 『歷代名臣奏議』 卷277, “何謂官闕? 以祖宗實錄考之, 朝臣自館職而上, 差除悉書文臣自卿監, 武臣自刺史, 宗室自小將軍而上, 皆當立傳.” 남송 汪藻가 올린 劄子에 의하면, 소장군은 종실 인물이 받는 관직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면 12세기 초, 소장군이 요뿐만 아니라 남송에서도 종실의 관직으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 72) 시기가 지날수록 소장군의 접두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소장군의 의미가 점차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2. 백제 내 북방계 군사문화 유입의 흔적

앞서 ‘소장군’을 북방계 군사문화의 영향이 강한 무관직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384년 모용영 이후 晚唐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관련 사례가 확인되지 않다가 갑자기 6세기 중반, 백제 사비기 왕궁터에서 수습한 목간에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살펴봤지만, 장군의 상위 개념으로 ‘大’를 더한 장군호는 중원 왕조에서도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하지만 <표 1>에서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上下 또는 高下의 대칭 관계를 염두에 두고 ‘大’와 ‘小’를 장군호에 활용한 사례는 요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⁷³⁾ 특히 중장군과 소장군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비율만 확인되는 데다가, 북방 문화권에서만 그와 같은 대칭 관계의 장군호가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삼국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구려와 신라에는 처음부터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관작들이 존재했다.⁷⁴⁾ 고구려의 大兄과 小兄, 大使者와 小使者가 그러하며, 신라의 大使와 小使[舍知], 大鳥와 小鳥가 그러하다.⁷⁵⁾ 이는 국가 초기에 존재하던 관작이 국가 발전 및 성장에 발맞춰 세부 기능에 따라 분화된 결과로 보인다. 동시기 중원 왕조가 이미 세분된 관작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양상은 북

73) 이는 ‘上’과 ‘下’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26사에서 상장군의 사례는 1,301건에 달하지만, 하장군의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하다. 장군보다 더 높은 관작으로서의 상장군 개념은 일찍부터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상/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양자의 비율이 비슷해야 옳을 것이다. 한편, 상중하가 장군 호로 쓰인 사례가 『한서』, 『위서』, 『수서』에만 나오는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74) 曹魏에서 부여의 군주를 單于로 부르고, 孫吳에서 고구려 동천왕을 선우로 삼았다는 『三國志』의 기록을 보면, 3세기 이전 중원에서는 부여·고구려도 선비, 오환, 동호 등과 마찬가지로 북방 세력으로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稗史[홍노]의 후예를 자처한 신라 김씨 왕족과 마립간기 적석목표묘에서 출토된 북방문화요소를 보면 양국 관계에 북방식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75) 이규호, 「高句麗 官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63~87쪽. 고구려 초기 관등인 사자가 분화하여 대/소사자로, 조지에서 분화한 형제 관등이 대/소형으로 나뉜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5부 간 권력 구조의 변화, 영토 확장에 따른 복속세력의 확대 등에서 찾기도 한다. 그에 따라 관등은 대소의 구분을 통해 왕 아래로 서열화하는 기능만 남게 되었고, 관직을 설치하면서 소관 업무를 나누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는 삼한, 백제, 신라도 비슷했을 것이다.

방계 문화요소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⁷⁶⁾

그에 반해 백제 관작에서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다가 5세기대에 흉노식 위호인 ‘좌·우현왕’이 갑자기 등장해 주목된다. 종래에는 같이 등장하는 중국식 장군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흉노·돌궐의 예를 들어 군사권을 장악한 군주의 근친이 임명된 자리⁷⁷⁾라는 해석이 통용된 지 오래다. 더불어 5호16국 시기 여러 이민족이나 남조 등을 통해 백제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⁷⁸⁾

그와 달리 흉노 멸망 이후에도 흉노식 위호[선우·좌현왕·우현왕]가 중원에서 계속 사용되었으며, 4세기 전반 2郡 소멸을 계기로 대거 유입된 유이민들의 관리·통제 및 동아시아에서 권위가 높았던 흉노식 위호에 기대기 위함⁷⁹⁾으로 보기도 한다.

즉, 백제 고유의 무관직을 기반으로, 5세기대까지 중원의 장군제 및 흉노를 비롯한 북방계의 위호·관작 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 6세기대에는 백제의 독자적인 군사 편제 및 그에 따른 지휘체계 등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 5~6세기에 걸쳐 남조 諸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백제였던 만큼 북방계 군사문화의 비중이 고구려, 신라에 비해 적었으며, 오늘날 그 흔적도 소수만 남게 된 것은 아닐까 싶다.

그 와중에 확인된 소장군이라는 장군호는, 북방계 군사문화 및 백제와

76) 商代 갑골문에는 관직으로서 大史/小史가 대구를 이루며, 『주례』의 6官 조직을 보면 大宰/小宰, 大司徒/小司徒, 大司馬/小司馬 등 長·次長급 관직이 확인된다. 하지만 商鞅變法 이후 秦에 정착한 軍功수작[二十等爵]은 단순히 대/소로만 위계를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촘촘한 관작 체계였으며, 한대가 되면 俸祿[石]으로 위계를 표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대/소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위진남북조 이후 수·당대에 이르게 되면 품계별로 正/從 또는 上/下로 위계를 나누어 십수 개의 관작이 체계화된다. 즉, 중국도 초기에는 대/소로 양분화된 관작 체계가 있었으나 일찍부터 관작을 세분화한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고대 삼국과 병존할 무렵에는 그러한 흔적은 북방 유목세력과 삼국에만 그러한 흔적이 남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77)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68~71쪽.

78)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013, 143쪽; 井上直樹(임동민 譯), 「백제의 王號 侯號 太守號와 將軍號-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 『百濟學報』 25, 百濟學會, 2018, 305쪽.

79) 남소연, 「5세기 백제의 좌·우현왕(左·右賢王) 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百濟學會, 2023, 61~73쪽.

의 접점이 다른 二國에 비해 적은 와중에도 꾸준히 지속한 양자 간 관계성을 언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군사사적으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2. ‘도독’과 ‘도사’를 통해 본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曹魏 초기에 성립한 도독제에서 州郡都督의 공식 명칭은 ‘(行)都督督軍’으로, 후한의 ‘都督’과 ‘督軍’을 합쳐 ‘도독독군’으로 만들고, 그 밖의 독군 관직은 폐지한 결과였다. 이후 서진과 동진도 이를 계승한다.

조위~동진의 주군도독은 기본적으로 장군 또는 四中郎將이 겸임하였으며, 관할 범위 내의 주군현에서 인원과 군수 물자의 징발·수송 등 軍政을 총괄하고, 감찰·사법에까지 미치는 권한을 가진 존재였다. 더 나아가 方面軍 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모든 軍事 長官을 통괄했을 뿐 아니라, 장군호를 칭함으로써 주군 병력을 거느린 주자사·군태수 등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후한의 도독[督帥]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

즉, 戰線의 방면군 장관이었던 도독은 인력·물자·군사 시설·군사 요충지(산맥/하천 등) 등을 포함한 도독구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는 삼국~兩晉 시기 각국의 주요 군사력으로 존재했다.⁸⁰⁾

『한원』에 따르면, 백제 왕성에는 5부 5항이 있었으며, 외부에는 5방이 자리했다고 한다. 각 방에는 적게는 700~800명, 많게는 1,000명 내외의 병력이 주둔했으며, 달솔(2품)이 다스렸고, 이를 중국의 도독과 동일시켰다. 그리고 각 방은 6~10개 내외의 군을 관할하였고, 군현에는 도사를 두었는데 이를 성주라고 불렀다고 한다.⁸¹⁾ 이처럼 5방을 관리했던 달솔을 도독에 비견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도사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했는데,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백제에

80) 潘宗悟, 「三國兩晉時代の都督區と軍事戰略」, 東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4.

81) 『翰苑』蕃夷部, 百濟, “王所都城內, 又爲五都, 皆建率領之. 又城中五巷, 士庶居焉.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建率領之. 每方管郡, 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城名主. … 其諸方之城, 皆憑山險爲之. 亦有累石者, 其兵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⁸²⁾도 있다. 하지만, 백제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모든 도사가 백제만의 특수한 관직이었다면, 중국 사가들이 이를 성주에 비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백제의 도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라는 본래의 역할도 담당했지만, 필요한 경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에 표기된 ‘도독’과 ‘도사’를 통해 사비기 중앙 정부에서 해당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분명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독이 담당 圈域을 총괄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6세기 중반 백제의 지방체제 및 軍制를 가늠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3.3. ‘서인’의 의미

백제 목간에서 처음 등장한 ‘서인’이 오히려 비슷한 시기 신라 금석문에서는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에 반해 문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일단 국내 사료에는 용례가 전혀 없다. 수백 년간 국가를 운영하면서, 삼국에도 그에 종사했던 행정관료가 다수 있었을 텐데 정작 그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분명 의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史記索隱』에 따르면 당시 ‘書人’을 ‘掾子’로 불렀는데, 『三國志』와 『漢書』에서는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각 1건만이 확인된다.

『南齊書』와 『北齊書』에는 각 3건이 확인되는데, ‘能書人’과 ‘善書人’ 등 ‘특출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일부는 곁에서 글을 쓰는 일을 맡은 직책[侍書]에 임명되기도 한다.⁸³⁾ 그리고 『梁書』에는 ‘工書人’이라는 표현(4건)이 확인되는데, 벽에 글씨를 써서 걸거나[題之於壁] 문서를 정갈히 베껴 썼던 것[繕寫]을 보면, 점차 이를 ‘專擔’하는 계층 또는 집단

82) 송기섭, 앞의 논문, 2025.

83) 『北齊書』卷44, 列傳36, 張景仁傳, “後主在東宮, 世祖選善書人性行淳謹者令侍書, 景仁遂被引擢.”

에 대해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26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北史』에 ‘作書人’이 확인되며, 상소문을 (쓰서) 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의 ‘上書人’과 옛 문헌을 강론하는 사람(직책)이라는 뜻의 ‘說書人’도 보인다. 『隋書』와 『金史』부터는 ‘글 읽는 계층(선비)’이라는 의미의 ‘讀書人’이 처음 등장하고 『舊唐書』에 이르면 ‘군주의善恶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비로소 ‘史官’⁸⁴⁾이 등장한다.

한편, 일본 사료인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의하면 백제 창왕 [위덕왕] 35년(588), 百濟寺 불사를 청하면서 법사와 각 분야의 장인들을 파견했는데, 그때 서인으로 百加 博士와 陽古 博士를 파견했다고 한다.⁸⁵⁾

일찍이 박사는 도서와 전적을 관리하는 한편, 군주의 고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문관→전문화된 교수직→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게 봤을 때 근초고왕 대에 등장한 박사 高興은 자문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본다면 박사는 당시 백제왕의 近侍官이었을 테고,⁸⁶⁾ 서인을 단순히 문서 업무를 담당하던 하급 행정관료로만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중국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인의 명칭이 변화했고, 이는 그 성격의 변화를 동반한 결과라고 한다면, 신라 금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명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관련 사료가 처음 등장한 만큼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다만, 백제 행정관료 및 문서행정 체계에 대한 일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관 및 무관직과 함께 인사의 대상으로 서인이 등장함에 따라 당시 軍政 또는 지방 행정에 대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문·무관이 임명되어 발령 난다거나, 그와 동반해 군대가 파견

84) 『舊唐書』卷149, 列傳99, 張薦傳, “... 延齡聞之怒, 奏曰:「諫官論朝政得失, 史官書人君善惡, 則領史職者不宜兼諫議。」”

85)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 戊申, 始請百濟寺名昌王法師及諸佛等. ... 書人百加博士, 陽古博士.”

86) 이창현, 「4-5세기 백제 近侍官 운용과 그 배경」, 『白山學報』 132, 白山學會, 2025, 282~284쪽.

됐을 때, 혹은 관계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서인으로 불리는 행정관료가 한데 묶여 인식됐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백제군이 단순히 무관(상·하 지휘관) 및 병사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 다층적인 문무관 계층과 복잡한 편제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음을 방증한다.

4. 맺음말

부여 관북리유적은 사비기 백제 도성 내 핵심 유적으로 최근 16차 발굴 결과, 329점에 달하는 목간이 수습되었다. 조사단은 목간의 수량(국내 최대)과 연대(사비기 最古), 최초로 발견된 삼국시대 橫笛, 사비기 백제 행정문서가 갖는 포괄적 의의(백제의 행정 체계, 書寫 문화, 전문지식계층 등)를 강조하였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동안 사료에서만 봐 왔던 백제 官爵, 특히 무관직과 지방관직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소장군’과 백제에서 처음 발견된 ‘도독’, 『括地志』에만 전하는 ‘도사’ 등의 관직이 확인됐으며, 施德(8품), 文督(12품), 武督(13품), 佐軍(14품), 旅武/振武(15품?) 등 주로 下品에 해당하는 관등이 보여 주목된다. 기존에 백제에서 확인된 관품이 대체로 上品의 솔계 관등(덕솔/4품, 나솔/6품)과 中品の 덕계 관등(대덕/11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확인된 관북리 목간에 기재된 인물들이 당시 각종 군정·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던 집단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목간이 수습된 수로에 인접한 건물지의 성격(하품 관등에 대한 인사 관리 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업무와 관련된 관직과 관련한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⁸⁷⁾ 이는 6세기 중반 백제의 인사 행정과 지방통치, 문서행정의

87) 예를 들면, 사비 천도(538)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관료 및 토착 집단으로부터의 인수인계 등 사전 작업을 위한 실무진 다수의 발령, 또는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관작 수여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관북리유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이기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추론을 자제하겠다.

실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목간의 판독과 기능 해석에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예컨대 ‘小將軍’의 성격 및 그 역사적 배경, ‘旅武/振武’의 판독 문제, 31번 목간의 ‘刀足二’ 해석 등은 정식 발굴보고서와 후속 비교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문제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이 백제 관작과 군정·행정 운영의 실체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실증 자료임을 제시하는 데 우선적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가 향후 백제 관제 및 고대 군사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1,500여 년만의 귀환, 사비백제의 악기와 문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부여 관북리 유적 조사 성과 기자간담회 설명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6, 1~33쪽.

참고논저

<논문>

- 강동석, 「사비도성의 경관 해석」,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8-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 30~46쪽.
- 김지선, 「부여 관북리유적의 형성과 변천」, 『한국고고학보』 2025-2, 한국고고학회, 2025, 443~468쪽.
- 金翰奎,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體制」, 『東洋史學研究』 44, 東洋史學會, 1993, 65~122쪽.
- 남소연, 「5세기 백제의 좌·우현왕(左·右賢王) 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百濟學會, 2023, 59~79쪽.
- 송기섭,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본 百濟의 道使」, 『한국고대사연구』 119, 한국고대사학회, 2025, 223~259쪽.
- 신광철, 「고구려 軍事儀禮 연구를 위한 提言」, 『新羅史學報』 62, 新羅史學會, 2024, 159~230쪽.
- 심상욱, 「부여 지역 백제 목간의 발굴 현황과 분포」, 『목간과 문자』 30, 한국목간학회, 2023, 29~68쪽.
- 이규호, 「4~5세기 고구려 中裏都督府의 성립과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53, 高句麗渤海學會, 2015, 99~119쪽.
- _____, 「高句麗 官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상일, 「부여 관북리 유적 연못 출토 목간과 목제품의 폐기양상」, 『동서인문』 19,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22, 153~192쪽.
- 李玉君·趙永春(김태순 譯), 「金代 ‘郎君’ 관련 문제 고증」, 『奎章閣』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219~234쪽.
- 李周鉉, 「軍府體制로 본 魏晉南北朝史」, 『中國學報』 38, 韓國中國學會, 1998, 381~394쪽.
- 李周鉉, 「魏晉南朝의 將軍制와 ‘寧東大將軍」, 『百濟文化』 46, 公州大學校 百

濟文化研究所, 2012, 183~204쪽.

이창현, 「4~5세기 백제 近侍官 운용과 그 배경」, 『白山學報』 132, 白山學會, 2025, 279~309쪽.

전병우,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軍史』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168~200쪽.

정동준, 「백제 초기 관제(官制)의 성립과정-좌(左)·우보(右輔)와 좌장(左將)·좌평제(佐平制)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111~142쪽.

_____, 「5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백제 및 남조 주변제국에 수여된 장군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2, 효원사학회, 2017, 95~118쪽.

_____, 「5호16국의 고구려 책봉과 그 의미」, 『韓國史研究』 207, 韓國史研究會, 2024, 1~46쪽.

崔珍烈, 「後漢 光武帝의 官制 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22, 5~39쪽.

高橋徹, 「南北朝の將軍號と唐代武散官」, 『山形大學史學論集』 15, 山形大學人文學部教養部歷史學研究室, 1995, 49~72쪽.

潘宗悟, 「三國兩晉時代の都督區と軍事戰略」, 東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4.

曾震宇, 「遼朝檢校銜探析—兼談武散官的使用問題」, 『漢學研究』 38-3, 漢學研究中心, 2020, 125~166쪽.

Yantao Kuang, “Speculation on the Scribal Nature of the Shiji Based on Two Cases of Misordered Slips in the Memoirs Section”, *Journal of Sinographic Philologies and Legacies* 1-2,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2025, pp.203-220.

<단행본(보고서)>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013.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同朋舍, 1956.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61.

關步克, 『品位與職位』, 中華書局, 2002.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인터넷 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小學堂 字形演變資料庫(<https://xiaoxue.iis.sinica.edu.tw/>)

Abstract

Uses and Functions of Baekje Official Ranks and Titles:
A Preliminary Study Based on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Gwanbuk-ri Site in Buyeo

Shin, Kwangcheol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sixteenth excavation at the Gwanbuk-ri site in Buyeo yielded 329 wooden tablets, the largest corpus ever recovered from a single archaeological site in Korea, among which a considerable number of Baekje official ranks and titles were identified. Particularly noteworthy are rarely attested offices such as *Sojanggun* (小將軍), *Dodok* (都督), *Dosa* (道使) and *Seoin* (書人), together with lower-ranking titles including *Sideok* (施德), *Mundok* (文督), *Mudok* (武督), and *Jagun* (佐軍).

Rather than seeking a definitive reconstruction of the entire Baekje system of official ranks and titles, this article present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ir uses and functions in the context of the mid-sixth century. The Gwanbuk-ri wooden tablets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the operation of personnel administration, local governance, and documentary practices in Sabi-period Baekje, while also furnishing an empirical basis for supplementing interpretations previously based primarily on transmitted texts. They also offer valuable new clues for the study of Baekje military institutions and, more broadly, ancient military history.

Keywords: Baekje, Gwanbuk-ri site, wooden tablets, military institutions,

Sojanggun (小將軍), *Dodok* (都督), *Dosa* (道使), *Seoin* (書人)

부여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을 통해 본 백제 官爵의 용례와 기능 - 기초적 검토 · 신광철 153

신광철

소 속: 국립중앙박물관

전자우편: heritagekwang@korea.kr

논문투고일 2026. 02. 11 / 심사완료일 2026. 03. 13 / 게재결정일 2026. 03. 14